

제3회 한·일 어항기술교류회의 를 다녀와서

- 어항·어촌 교류의 동북아시대를 추구하는 일본

허재완 / 중앙대 교수

■ 들어가며

1997년부터 시작한 한·일 어항기술교류회의가 벌써 3회를 맞이하였다. 지난 3월 16일 일본 기타큐슈시 기타큐슈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교류회의는 원래 1999년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일본측의 사정으로 1년이 지연되어 올해 개최되었다.

제3회 한·일 어항기술교류회의는 기존의 한·일 양국간 교류체제를 한·중·일의 3자간 교류체제로 전환시키려는 일본측의 구도가 가시화된 시점이라 우리측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최근 중국과 어업협정을 마무리한 일본이 이제 본격적으로 어항·어촌 관련 동아시아 국가간 민간교류를 추구하는 자세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여야 할 것인가를 새삼 생각해 해준 계기가 되었다. 제3회 한·일 어항기술교류회의의 참관기를 일정별로 나누어 정리해 본다.

■ 3월 15일 : 리셉션 환영만찬

일본 방문 첫날인 15일 저녁에는 회의 참가자들의 상견례 및 환영리셉션이 주최측인 일본 전국어항협회의 주관으로 숙소인 치산호텔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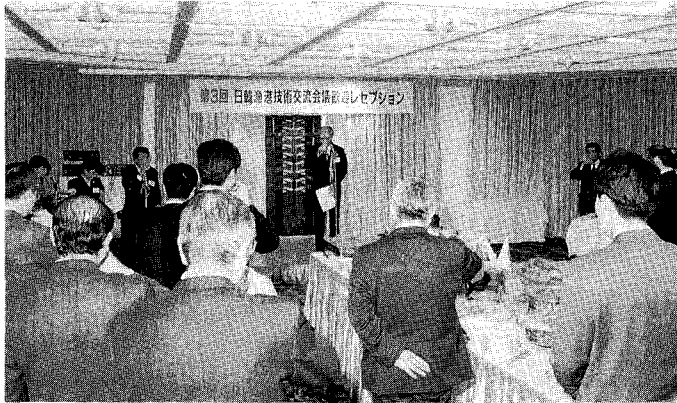
연회장에서 성대히 개최되었다. 한국 측에서는 황금추 한국어항협회 부회장을 단장으로, 한국 해양수산개발원 신영태 박사, 중앙대 허재완 교수, 어항협회 이용기 부장, 해양수산부 이남교 사무관, 해양수산부 전충남 주사, 동광건설 문용주 상무 등 7명의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중국에서는 3명의 대표단이 읍서버로 참가하였다. 중국 농업부 계획국 쉬빈 건설처장을 단장으로, 대련 수산대학의 류안슈규양 교수, 중국 수산과학원 어업공정연구소의 첸동 주임 등이다.

일본 측에서는 전국어항협회 사카이 회장을 비롯한 협회관계자, 수산청 어항부의 키다 건설과장을 비롯한 수산청 관계자들, 후쿠오카현 및 기타큐슈시의 수산어업정책 관계자들, 후쿠오카 지역 어항협회 관계자들, 그리고 지역 내 어업협동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한·일·중 각국 대표 및 일본 수산청장(대독), 후쿠오카현 지사(대독)의 축사가 있었는데, 황금추 한국측 단장은 한·일어항기술교류회의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보다 건설적인 모임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요지의 인사말을 했다. 한편 사카이 일본 어항협회장은 본 제3회 회의부터 중국 측 관계자들이 참석하게 됨에 따라 한·일 어항기술교류가

앞으로 동북아모임으로 확대되어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측 쉬빈 단장은 중국을 옵서버로 참여시켜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이 모임에 지속



■ 한·일·중 어항·어촌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리셉션을 하고 있다.

적으로 참여하여 한·일 양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강력한 의사를 표명하였다.

만찬은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1998년 제2회 서울회의에 참석하였던 일본측 참가자들은 2년 전을 회상하며 한국측 참가자들에 대한 반가움을 표하였다.

■ 3월 16일 : 제3회 한·일 어항기술 교류회의 개최

키타큐슈시의 키타큐슈국제회의장에서 오전 10시에 시작된 제3회 한·일 어항기술교류회의는 1부의 개회식과 2부 일본측의 기조강연, 3부 세미나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먼저 개회식에서는 한·일양국 어항협회대표의 인사말과 일본 수산청장관, 후쿠오카현 지사와 키타큐슈 시장의 축사가 있었다. 일본 어항협회장과 수산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항·어촌정비사업에 있어서 동아시아 국가들간의 교류협력이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황금추 한국측 대표는 그 동안 한·일 양국간의 협조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인 어항·어촌의 종합개발을 위해 양국은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양국의 협조가 보다 실질적인 우호증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후쿠오카현 지사와 키타큐슈 시장은 큐슈지역이 수산·어업분야 동아시아 협력의 전

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개회식에 이어 히로시마대학 쯔이 아끼후 교수의 기조강연이 있었다. 쯔이 교수는 원래 건축·도시계획을 전공하였으나 일본 어촌공간의 아름다움에 반해 어촌지역연구에 전념하게 되었다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주장을 하였다. 그는 우선 일본 연안지역의 주거패턴과 어민들의 생활풍속을 검토하면서, 일본 어촌지역의 주거형태가 일본고유의 형태가 아니라 중국, 인도네시아, 한국 등 인접 동아시아 국가들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는 것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즉 일본 와지마시와섬을 비롯한 일부 연안지역의 어촌주택은 중국 남서부 해안지역의 어촌주택 유형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며, 두 지역 모두 어선내 공간을 육상주거공간 형태로 전환시켰다고 주장하였다. 뿐만아니라 나나쓰섬을 비롯한 일부지역 해녀들의 활동방식은 한국의 제주지역 해녀들의 활동양식과 매우 유사하다고 설명하였다.

쯔이 교수는 또한 문신이나 조형기술, 재래신앙 및 의식 등에 있어서도 한·중·일 어촌지역 간 유사성이 목격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第3回 日韓漁港技術交流會議



■ 기술교류회의에 앞서 坂井 淳 일본전국어항협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들을 종합해 볼 때, 동북아국가들 사이에는 오래 전부터 해상교류를 통하여 문화 및 인적교류가 있어왔으며 향후도 이 같은 전통을 계승, 발전시킬 경우, 유

럽연합과 같은 동아시아 연합체의 형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찌이 교수의 이러한 주장은 어촌지역의 공간구조를 역사적, 비교 국가적 관점에서 살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일본 전국어항협회, 수산청 등이 회의의 기본 흐름을 동아시아 협력 필요성에 맞추어나가는데 대해 학자의 기초강연까지 그 같은 주장을 우회적으로 뒷받침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한편 3부의 세미나는 일본, 한국, 중국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먼저 일본의 발표자로 나온 타카요시 수산청 어항건설과장보는 일본 수산기반정비의 역사를 간략히 설명하고, 향후 일본 수산업 및 어촌지역 정비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일본 수산기반정비의 역사에 대해 어항·어촌정비와 연안어장의 정비로 나누어 설명했다. 특히 그동안의 어항·어촌정비 역사를 4단계로 나누어 전쟁 후 부흥기(1945~1955), 고도성장기·확대기(1956~1973), 안정성장기(1974~1988), 새로운 어항·어촌 정비기(1989~2000)로 정의한다. 다음 각 단계별로 취해진 주요한 시책을 소개하였다. 이어서 연안어장의 개발사업역사를 1차(1976~1982), 2차(1983~1988), 3차(1989~1993), 4차(1994~2001)로 나누어 각 기별

정책주안점을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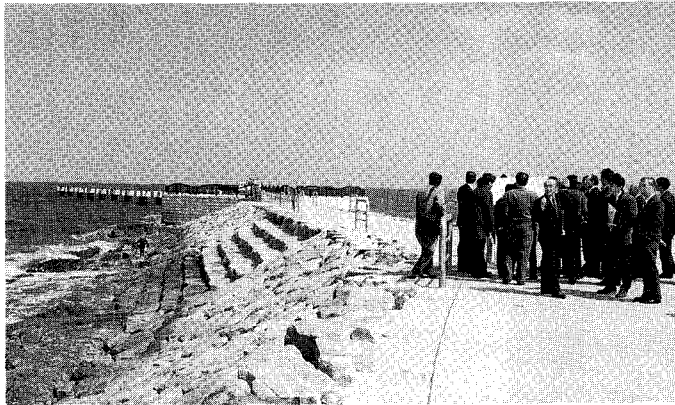
타카요시 과장보는 향후 일본의 과제로 I) 어업생산의 감소 및 수산자급률의 감소 경향의 방지문제, ii) 수산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가공 및 유통체제의 확립문제, iii) 수질정화를 통한 해양환경의 보존문제, iv) 해양 레크리에이션기능의 강화문제, v) 어촌의 취약한 기반시설 보강문제, vi) 고령자의 증가로 인한 어업인구의 감소대처문제 등을 제시했다. 일본측의 이와 같은 문제제기는 사실 우리나라의 실정과 너무나 유사해 한국측 참석자들의 많은 공감을 얻었다.

한국측 발표자인 신영태 박사는 한국의 수산기반정비사업을 어장개발사업, 수산자원조성사업, 어항개발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나누어 추진사업현황과 성과, 문제점 및 향후 방향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특히 신 박사는 수산기반으로서의 어장·어항·어촌의 효과적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이를 위한 한국측의 정책 노력과정을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참석자들의 많은 공감을 얻었다.

마지막으로 중국측 발표자인 쉬빈 농업부 건설처장은 중국어항건설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자세한 소개를 하였다. 그는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어업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산업의 중심기지인 어항건설이 국가의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중국에는 2만km의 해안을 따라 7백여

개의 어항이 있는데 이 중에 국가 직영항이 30개, 그리고 나머지 자치단체 관리항 중에 82개의 중점어항이 있다고 밝혔다. 효과적인 어항관리를 위해서는 민간투자를 권장



■ 마리노베이선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脇田어항의 인공늪시터 건설현장

하고 있으며 다양한 재원조달방법을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어항·어촌 정비사업은 아직 여러모로 낙후된 상황에 있으며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배우기를 원한다고 했다. 이러한 중국측의 발표는 그 동안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던 중국의 어항·어촌정책의 기본방향을 이해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는 것이 한국측 참석자들의 의견이었다.

각국 대표들의 발표 후에는 발표내용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는데, 상대국 발표내용에 대해 많은 질문들이 쏟아져 토론분위기를 뜨겁게 달구었다. 한국측 참석자들은 일본의 어항 다기능화 정책의 효과성과 어항관련기술에 대해 많은 질문을 제기하였다. 반면 일본측은 한국의 어촌개발사업의 재원조달방안, 특히 농어촌개발을 위한 특별세제도, 어촌지역관광사업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토론에 이어 한국 및 일본 대표단의 폐회사를 끝으로 제3회 한·일 어항기술교류회의가 막을 내렸다. 양측 대표 모두 이번 회의의 결과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앞으로도 양국의 어촌·어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내년 한국에서 열릴 제4차 회의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다.

■ 3월 17일 : 어항·어촌 시찰

한국대표단, 중국대표단 및 일본측 관계자 등 모두 30여명의 시찰단은 오전 10시 첫 번째 시찰지인 와이타

어항에 도착하였다. 시찰은 와이타 어업협동조합장 인사, 와이타항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 질의응답, 현장답사의 순서로 이어졌다. 와이타 어항은 인구 100만명의 기타큐슈시를 배후 지역으로 갖고 있는 전형적인 대도시 인접 어항·어촌 지역으로서, 1993년 일본 수산청이 전국적으로 50개 마리노베이선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때 기타큐슈시와 와이타 어업조합이 합동 사업으로 제안하여 선정된 사업장이다. 와이타 어업협동조합은 67명의 조합원을 갖고 있는데 이중 40세 이하는 11명에 불과하며 60세이상인 조합원이 30명에 달해 일본 어촌지역의 노령화현상을 실감할 수 있었다. 83척의 어선을 보유하고 있으며(이중 5톤미만이 59척)연간 어획고는 410톤에 달한다고 한다.

전형적인 소규모 어업용 어항에서 배후도시민들을 위한 위락기능 등을 겸비한 현대적인 다기능 어항으로의 변신을 위해 와이타 어항지역에는 어항시설정비사업(가공시설, 냉동·냉장 시설, 제빙시설 등), 어촌주거환경정비사업, 주변환경정비사업(다목적 광장 설치 등), 마리나 시설사업, 어항관련도로 정비사업, 해안환경정비사업 등 6개의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었다. 이들 사업에 총 190억엔이 투자될 예정인

데 전체투자소요액의 50%는 중앙정부, 15%는 후쿠오카현 그리고 나머지 35%는 기타큐슈시가 지방채를 발행하여 부담할 계획이다. 현재 전체공정의 50%가 진행중이며 2005년 완공예정이다.

와이타 어항의 정비사업은 경제난 등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기타큐슈시와 지역주민들이 힘을 합쳐 매우 모범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한국측 방문단 뿐만아니라 중국대표들도 모두 강한 호기심을 보이며 현지시찰시 많은 질문을 하느라 시찰시간이 예정보다 많이 소요되었다. 와이타 어항은 한국에서도 자주 거론되고 있는 다기능어항의 제반 요소들을 잘 갖추고 있어 정비사업이 끝난 뒤 다시 한번 이곳을 방문하여 제반 운영사항 등을 정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후에는 2번째 시찰지인 후쿠오카시내의 하카다 어항을 방문하였다. 하카다 어항은 와이타 어항과 달리 상업항·여객항 등 대규모 종합항인 후쿠오카항내에 있는 대도시내 어항이다. 하카다 어항은 1960년에 특정 제3종 어항으로 지정되었으며 원양어업과 연안어업을 동시에 하는 수산전용어항으로서 후쿠오카 지역뿐만 아니라 큐슈지역에서도 가장 활발한 수산시장을 갖고 있다.

하카다 어항의 재정비사업은 현재 후쿠오카시의 주도로 7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01년이 목표년도이다. 이번 재정비사업에는 총15억엔이 투자될 계획이며 사업의 초점은 크게 2가지이다. 하나는 수산물소비지로서의 기능강화를 위해 어항의 물류시설을 현대적으로 정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워터프론트정비를 통해 어항주변지역을 보다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휴양 및 위락공간으로 재정비

하는 것이다.

■ 맺으며

3박4일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제3회 한·일 어항기술교류회의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 유익한 교류시간이었다.

무엇보다도 일본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어항협회, 어업협동조합 등 어항관련 유관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어항·어촌의 발전을 위해 진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 같은 협력자세는 세미나, 시찰, 만찬 등 모든 행사 과정에서 뚜렷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어항정비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도 강하게 느껴졌다.

이번 회의는 또한 일본이 동북아 국가간 교류를 강력히 희망하며 향후에도 이 방향으로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준 계기가 되었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도 그 같은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본이 다기능어항의 추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일본측의 그 같은 시도를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배워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현재 일본에는 13개의 마리나가 있고 건설 중인 것만도 19개에 달한다. 이것은 일본 어항들이 지역주민들의 라이프 싸이클의 변화에 따른 수요에 부응, 지역 어항을 관광상품화 하려는 시도로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았다. 특히 일본은 이 같은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Fisharina 협회”(Fish+arina의 합성어)라는 반관·반민형태의 전문단체를 창설하여 마리나시설을 계획하는 자치단체 및 어업협동조합에 대하여 기술 및 경영지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정책적인 시사점을 주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느껴졌다. ㉠